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지 훈 · 박 옥 임^{1)†} · 김 진 희²⁾ · 박 준 섭³⁾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¹⁾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²⁾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³⁾

The Effect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ir Parents Perception

Lee, Ji Hun · Park, Ok Im^{1)†} · Kim, Jin Hee²⁾ · Park, Joon Sup³⁾

Suncheo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Suncheon, Korea

Division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¹⁾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²⁾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ersity, Muan, Korea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ir parents perception and to submit basic material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parental capability for enhancing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below. All of the subjects who recognized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ir parents perception showed middle score over 3. The parents who recognized family strength and parental efficacy were examined as the factors which influence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These showed that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is better when parents recognized that family strength is higher, and when parents recognized that parental efficacy is higher. But when parents recognized social support, no meaningful influence appeared, so if the parents who are first social supporters of school-aged childre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which has a high adaptability with high social support, and recognize the difference of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and home, it could be the factor to reduce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at school.

Key words: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parents efficacy, school adjustment

접수일: 2012년 12월 5일 심사일: 2013년 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82-61-750-3671

e-mail: parkok@sunch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가족은 인간이 사회화 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장소로, 인간이 태어나 가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이 평생에 걸쳐 한 인간의 습관이나 지능·행동·정서·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체성 확립은 그가 속한 일차적 환경인 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Yoo 2004). 아동의 경우 가정 환경은 전인적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다. 특히 부모의 영향력은 아동의 양육과 훈육을 책임지며, 자녀인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볼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족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여 가정의 문제, 그 속에 자녀의 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핵가족화·개인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뿐 아니라 가족외의 사회적 지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사회화 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장소이다. 인간이 태어나 가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이 평생에 걸쳐 한 인간의 습관이나 지능·행동·정서·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성장발육과 그에 따른 기대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태도라고 보았다(McGillicuddy-DeLisi 1985).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부모 혼자 스스로 생성,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과 주고받는 자극 가운데에서 배우고 느끼고 모방함으로써 습득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가정불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혹은 과도한 기대,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같은 상황은 청소년들의 발달을 위협하여 가정의 실패는 곧 학교생활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yu 2003). 따라서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는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의 가족은 구조, 기능 및 유형의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 병리적이고 결함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강점 중심적이며 임파워먼트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Lee 2007).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가족건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은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가족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가 되고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인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Yoo 2010). 관련 연구들을 통해 가족건강성 수준이 가족원 정체성 형성과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정서적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아닌 가족의 존속과 유지를 가능케 하는 가족의 건강이 개인의 정서 향상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Choi 2010).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모효능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효능감은 높은 수준으로 보이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e 2002; Shin 2004). 정서적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환경적 조건이 아닌 가정의 존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자녀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건강성과 자녀의 학교적응

건강한 가족이라 함은 스트레스와 가족의 문제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가족체계 내·외적으로 대처자원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

복함으로써 적절한 응집성, 적응성,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Olson & McCubbin 1983)이라고 하였다. Yoo(2004)는 가족관계에 대한 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이라 보았다.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가 원만하여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적응력, 가족응집력, 가족의사소통으로 분류하고 있다(Olson et al. 1983).

Eo & Yoo(1995)는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원간의 유대는 가족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강한 유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유대수준이 높다는 것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서로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함을 의미한다(Lee 2003). 두 번째 건강가정의 특성으로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경청과 주목이 잘 이루어진다.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다른 가족과 더불어 사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가족 정체감을 창조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스트레스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세 번째 특성은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상황에서조차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며, 위기로 인해 와해되기보다는 위기를 다루면서 단합될 수 있는 능력이다. 가족원의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은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족원들이 대안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며, 문제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의사결정과정까지 포함한다(Lee 2003). 건강한 가족은 가족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과 불가피한 위기에 직면하여 가족원

들이 위기를 함께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Stinnett & DeFrain 1985; Yoo 2004). 마지막으로,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가족원간의 목표를 공유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한다. 그들은 전통과 가족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가족 가치관이나 규율의 원리가 명확하게 설명된다(Stinnett & DeFrain 1985; Jang 2010). 보통 건강한 가족구성원은 함께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종교의 가르침을 가족 구성원의 신념 또는 도덕적 가치로 받아들여 공유하며 가족전통을 즐긴다(Lee 2003). 이와 같이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가족건강성의 특성으로 가족의 사회심리적, 관계적 특성이 중시되는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 생활패턴이 개인주의의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과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일차적인 집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가족건강성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는 많지 않다. 최근 가족건강성에 대한 개념적 틀을 마련한 연구(Eo & Yoo 1995; Yoo 2004)와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 Yoo 2003; Nam & Park 2009).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이 모두 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가족건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제시하였다(Ahn 2005). 즉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에 따른 행동문제의 관계를 보면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며 수용적일 때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외현화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내고 있었다(Han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가족원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수

행하며, 가족의 공동체적·정서적·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하여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70년대 이후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행동 및 적응상의 문제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2005).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란 애정, 소속,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충족 되는 것,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대인간 교류,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Lee 2007).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어도 그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어떠한 관계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Park 2011).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네 가지 영역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설명하였다.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는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어 자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로 존중감, 애정, 신뢰, 경청, 관심, 배려의 제공을 말할 수 있다.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는 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기대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충고, 제안, 정보, 지식, 제안을 말할 수 있다. 물질적 지지(tangible support)는 개인이 필요 하는 것에 대한 직접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현물, 현금, 노동력, 시간, 환경 개선 등의 원조를 말할 수 있다.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는 개인의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 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피드백, 사회적 비교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으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높이기 때문에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Kim 1995), Kim(1997)는 중학생은 자신이 주위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또한 실제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교사 관계, 친구관계, 학교 수업 면에서 더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또한 Kang(2007)은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Goo(2000)은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잘 적응하는 청소년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다고 하였다. Han(1996)은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가 낮아진다고 보았고, Choi(1996)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응능력에 대해서 어머니와 또래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알려졌으며(Han 1996),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oo & Choi 1998).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의 제공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주며,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를 중재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3.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적응

Coleman & Karraker(1997)은 부모효능감이란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강한 직접적인 예측요인이며 양육의 질적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부모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orsey et al. 1999). 국내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이며, 이는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지만, 별다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Yoon 2004). Kim & Doh(2004)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으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용적이며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유능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동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가 높고 교육기관 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 분노, 공격성 등 문제행동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2004).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Yoo 2010). 부모효능감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Yang 2007).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부모의 높은 경제수준 역시 부모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 & Kim 2007).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

였다(Nondell & Tyler 1981). 이와 같이 볼 때,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자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하며 자녀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에 따른 자녀에 미치는 영향 중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첫아이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에 해당하는 학령기 자녀 교육기 가족의 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여분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3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부실응답으로 인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분석에는 총 322부가 이용되었다.

2. 연구도구

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국 척도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개념을 통합하여 제작한 Choi(2010)의 가족건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4개 문항으로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요인 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63 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Park(2011)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사회적지지 행위 속성을 4가지 하위영역 즉 정서적 지지(존경, 애정, 신뢰, 관심, 정보), 정보적 지지(개인의 문제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행위), 물질적 지지(돈, 서비스, 물건, 시간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평가적 지지(자신의 행위를 인정, 칭찬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지지 형태를 나누어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15 로 나타났다.

3) 부모효능감

Shin(1997)의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척도로서,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5가지 주제에 대한 부모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14-18의 5문항을 추가 구성하였다(Lee 2007).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고, 부모로서의 불안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11 로 나타났다.

4) 자녀의 학교적응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1999)가 사용한 학교생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이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945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처리를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 수준과 자녀의 학교적응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2명(19.3%), 여자 260명(80.7%)이었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36~45세 이하가 209명(64.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26~35세 이하가 68명(21.1%), 46세 이상이 45명(12%)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동이 190명(59%)을 차지했고, 읍(면)이 132명(14%)을 차지했다. 혼인여부에서는 초혼이 285명(88.5%)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 반면에 재혼가족은 37명(11.5%)로 낮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02명(93.8%), 배우자가 없거나 한부모의 경우는 20명(6.2%)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123명(38.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반면에 전문대학 졸업이하가 79명(24.5%)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20명(37.3%)을 차지했다. 가족형태는 부부+자녀 2대가족이 245명(76.1%)으로 가장 높았고, 부부+자녀+부모(남편부모 또는 아내부모)가족은 48명(14.9%)을 차지하였으며 한부모+자녀

가 29명(9%)으로 가장 낮았다. 종교분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63%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분포에서는 2명이 197명(61.2%)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수 1명(58명, 18%), 자녀수 3명(53명, 16.5%), 4명 이상(14명, 4.3%) 순으로 나타났다. 첫아이의 학년상태는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재학이 고른 분포를 나타냈지만 중학교 재학이 120명(37.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초등학교 1~3학년(105명, 32.6%), 초등학교 4~6학년(97명, 30.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 분포는 주부 71명(22%), 전문직 67명(20.8%), 판매서비스 59명(18.3%), 자영업 45명(14%), 공무원 32명(10%), 사무직 28명(8.7%), 일반직업 20명(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소득은 200만원 이상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0~499만원 80명(2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200~299만원 75명(23.3%), 300~399만원 72명(22.4%), 500만원 이상

67명(20.8%), 199만원 이하 28명(8.7%)로 나타났다.

2.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가족건강성의 평균 수준은 3.88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 간 의사소통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 가족원간의 유대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는데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3.91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고, 물질적 지지가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부모효능감 수준은 중간점수 3점 보다 많은 3.44로 중간수준이라

Table 1. Means of the scores obtained for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parental efficacy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Variables	M	SD
Family strength	Family bond	3.67	0.51
	Family communication	3.95	0.54
	Family problem solving	3.94	0.58
	Family value system	3.72	0.61
	Total	3.88	0.53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4.12	0.64
	Informational support	4.11	0.63
	Tangible support	3.58	0.93
	Appraisal support	4.26	0.64
	Total	3.91	0.60
Parental efficacy	Self-efficacy for parenting	3.56	0.57
	A feeling of uneasiness	3.40	0.92
	Competence	4.08	0.57
	Total	3.44	0.60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djustment to teachers	3.85	0.65
	Adjustment to schoolmates	3.88	0.59
	Adjustment to school life	3.58	0.67
	Adjustment to school work	3.79	0.61
	Adjustment to school events	3.48	0.70
	Total	3.72	0.53

고 해석된다. 이는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한 부모 자신의 신념 중에서 자녀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자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끌어주는 능력인 부모 능력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Table 1).

3.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영향력

1)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학교적응의 변인간 상관관계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과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이다.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의 변인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유대, 의사소통 수준이 기능적이고, 가족문제해결 능력, 가족간의 가치 체계 공유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Park & Hwang 2007; Nam & Park 2009)와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기여하여 학교 적응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 또한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도가 높아 교육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결과가 학교적응에 있어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Table 2).

2)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관련변인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과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72 로서 2에 근접한 값을 지니고 있어 이 연구에서 채택한 회귀식이 회귀과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VIF를 살펴본 결과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Variables	B	β
Gender	-1.52	-.045
Age	.324	.026
Education	-.516	-.039
Family strengths	.301	.408***
Social support	.100	.055
Parental efficacy	.191	.155**
Constant	39.65	
F	22.44***	
R ²	.286	

** p<.01 *** p<.001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이 자녀의 학교적응을 29%로 설명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건강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차적 사회집단인 가족생활에서 습득된 적응 능력이 학교적응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Kim 2008)에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variable related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Variables	1	2	3	4
1. Family strengths	1			
2. Social support	.781***	1		
3. Parental efficacy	.502***	.530***	1	
4. Children's school adjustment	.523***	.447***	.389***	1

***p<.001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이 주요영향변인으로 의 학교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는 과정에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 원인으로 가족관련 변인중 가정의 중심인 부모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의 실패는 곧 학교생활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 또다시 가정을 이루는 순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건강한 가족적 접근의 많은 선행 연구 중에 가정의 환경적 조건이 아닌 가정의 존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부모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 문제의 예방적 접근으로 가정환경 중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학교친구적응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은 3.72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가족건강성의 평균은 3.88점,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91점, 부모효능감은 평균 3.44점으로 3점 이상 중간 점수를 보였다. 부모효능감은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에 비해 약간 낮았다. 부모가 지각한 일반적 경향 중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적응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 1차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가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족원 개인의 자아개발·성취와 더불어 가족간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 건강한 가족 일수록, 사회관계에서 자신감을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Ahn 2005; Park & Hwang 2007; Jang 2010)에서 아동, 청소년,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자녀 관점의 학교적응이 아닌 가정의 중심에 있는 부모가 지각하는 관점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의 인식은 치열한 경쟁 속 혼란한 사회에서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으며 자녀에게 애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용적인 자녀 양육을 한다는 점에서 자녀의 능력과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융통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되어야 한다.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명확하게 하며, 가치체계를 공유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이 높아져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잘 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이 교사·또래의 관계성, 학습, 공동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부모가 긍정적인 지지를 자녀에게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또, 부모 스스로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이 수행한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감정이 자녀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는 부모의 걱정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자녀의 학교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이 영향력을 미친다. 즉, 부모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도 높게 나타나고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시작인 가정안에서의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건강성을 지켜나가는 것과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족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였던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 이었다. 하지만 핵가족제도가 주를 이루고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교육비의 부담과 자녀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자원과 관심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높은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에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영향력을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학교적응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을 확인하였다. 가족이라고 인지하며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즉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부모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효능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며, 이런 학령기 학생들의 사회적 1차 지지원인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가정생활의 적응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음의 중요성을 알고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악해본다면 자녀의 학교적응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원인제공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건강성, 부모효능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자녀들의 관심과 가치체계 공유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모로부터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지나치게 학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를 경쟁으로 내몰거나 지나친 과잉보호로 학교적응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을 중단하거나 학교 폭력 등의 부적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동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자녀의 지도에 혼란이 오게 되므로 부모의 역할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부모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만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닌 자녀가 함께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기술을 익힌다면 가족건강성과 부모효능감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모라는 부담감으로 자녀의 지도를 잘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과 현실에서의 차이로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목표 설정으로 반복된 성취경험이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와 함께 청소년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기법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면 부모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이 고취되어 가정의 건강한 안정성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므로 무작위 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심층 면접하는 질적 연구나 실험을 통한 연구와 같은 다양한 출처를 통한 정보수집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동부지역인 순천, 구례, 광양에 거주하며 첫아이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부모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이 학령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까지로 표집대상을 확장하여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분포에 있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면밀히 하여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조사대상자들이 갖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자녀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추후 연구에서 요청된다. 가족건강성의 측정에 있어서 급변하고 있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특성은 물론 가족유형에 따라 느끼는 가족건강성의 변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가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hn IY(2005)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with depression of adolescent.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ng hee University
- Choe HS(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 - efficacy.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Choi JA(1996)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of children and adjustment.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i JD(2005)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Choi KW(2010)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hildren on emotional intelligence.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Cohen S,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 Appl Soc Psychol 13(2), 99-125
- Coleman P, Karraker K(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 Rev 18, 47-85
- Curran D(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 Winston Press, Inc.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 Marriage Family 61(2), 295-305
- Eo EJ, Yoo YJ(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 Korean Home Econ Assoc 13(1), 145-156
-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o JE(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 adjustment in family life · school life.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Han YS(2006)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and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and behavior problems : Focused on 5th and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 Han MH(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use J(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Hwang IS(2004) Midlife adults' ego-identity and their perceived family strengths.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Jang SH(2010) A structural analysis on family strength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alternative schools.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Jeon GY, Kim SK(2007) The effects of marital parenting stress with preschool children on parenting attitudes. J Korean Home Econ Assoc 43(1), 35-51
- Kang GD(2007) Relations of school adaption an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o child stress.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m GH(1997)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HM, Doh HS(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 Child Stud 25(6), 279-298
- Kim MS(1995)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YG(2008)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 adjustment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oo SJ, Choi BG(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variabl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 Korean Home Econ Assoc 36(1), 23-34
- Lee EO(2008)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HJ(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 Lee JA(2007) The effect of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f single-parent-family children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Lee JS(2004) Preschool children's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ssociations with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 Lee KE(2003) Family volunteering and the family healthy. Korean J Soc Welfare 52, 63-87
- Lee WS(2007) Social work with families. Seoul : Hakjisa
- Lim HA, Lee IS(2006) A study on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J Child Educ 15(2), 37-62
- McGillicuddy-DeLisi AV(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Hillsdale. N. J. : Erlbaum, p56
- Nam YJ(2008) Impact on juvenile's school adaptation by family strengths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by self-esteem.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Nam YJ, Park TY(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tation. Korean J Youth Stud 16(4), 47-71
- Nondell S, Tyler FB(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 Psychol 17, 73-78
- Olson DH, McCubbin HW(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CA: Sage, Beverly Hills
- Olson DH, Russell CS, Sprenkle D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tto H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Family Living 24, 77-80
- Park JH(2003)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 of stress, self-efficac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 Park JW(2011)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ark MJ, Hwang KA(2007) An impa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 Human Ecol 10(2), 43-51
- Ryu KH(2003)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maladjustment. J Korean Home Econ Assoc 41(12), 147-168
- Shin HJ(2004) Relationship of mother's school adjustment expectation with her preschool child, parenting efficacy, and competence assessment. MS thesis,

-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hin SJ(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Stinnett N,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 Co.
- Yang JE(2007) The effects of a group music psychotherapy program on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 Music Ther Educ 4(1), 1-20
- Yang SM, Yoo YJ(2003) Effects of self-esteem, healthiness of famil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rural adolescents. J Korean Home Econ Assoc 41(9), 121-134
- Yoo GS(2004) A survey on the elements of strong families: Focusing on family systems and family strengths. J Family Relat 9(2), 25-42
- Yoo YD(2010) Influence of study-motivations by family strengths and self-efficacy from the view point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Yoo YJ(2009) Understanding of strong family. Paju : Kyomunsa
- Yoon EM(2004)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s parental efficacy and parental behavio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